

【논문】

박은식의 사상전변*

－ 생존과 자존 모색의 도정－

이혜경

【주제분류】 한국근대철학

【주요어】 박은식, 생존, 자존, 유럽근대문명, 중화주의, 보편주의

【요약문】 본고는 근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한반도의 생존을 넘어 자존(自尊)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이 한국의 생존과 자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어떠한 사상전변을 겪었는가를 추적했다. 계몽운동 초기의 유럽근대문명 수입, 양명학에 의지한 근대문명 비판, 유학과 중화주의 비판, 민족주의의 고취, 보편정신의 탐색 등이 본고가 따라간 박은식 사상의 궤적이다. 중화주의와 근대유럽 문명이라는 거대문명이 충돌한 한반도에서 박은식은 문명에도 유학에도 나아가 민족주의에도 그대로 머물 수 없었다. 생존경쟁과 동행한 문명의 비도덕성을 비판하고, 유학의 중국중심주의와 비실용성을 비판하면서 박은식은 민족주의를 고취하지만, 민족주의를 유일한 이념으로 삼을 수도 없었다. 중화주의와 문명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었지만, 민족주의의 입장에서는 문명도 중화주의도 비판할 수 없었다. 문명에도 유학에도 거리를 둔 박은식은 민족주의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민족을 넘어선 보편의 가치를 찾고,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I. 문제제기

중화의 주변에서 소중화를 자처하던 한반도¹⁾에서 유럽근대문명(Civilization)²⁾을 학습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서였다. 저들의 문명을 ‘도’(道)와 상대한 ‘기’(器)로 자리매김하여 그 수용과 학습을 과소평가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제도와 교육 차원의 전면적 수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즉 문명을 ‘도’의 하위 범주인 ‘기’가 아니라 ‘도’의 범주라고 인정하게 된다. “지혜가 날로 열리고 사업이 날로 나아가는” 효과를 낳는다고 기대되기도 했던 그 문명³⁾은 우승열패라는 정글의 논리도 동반하면서, 허약한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유통시켰다. 실제로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하나같이 그 문명 학습에 열을 올린 첫 번째 이유는 독립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이 계몽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강’(自強)이라는 가치를 내건 것도 같은 이유였다. 박은식은 “열등인종이 우등인종에게 정복되는 것은 옛날 금수가 인류에게 정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이 문명의 공격성을 자기 방식으로 합리화했다. “지식을 넓히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면 금수일 뿐이므로 저들이 병탄하는 것도 당연하다”⁴⁾고 하는 언명은 한반도의 행보를 열어가겠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이었다.

저들의 기준에서 나눈 우열을 받아들이면서 인간과 금수의 관계를 인종 사이에 유비하는 것이 얼마나 자학적인지, “생존경쟁은 천연(天演)이고 우승열패는 공례(公例)”⁵⁾라는 구호를 변화를 추동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
- 1) 본고에서는 한반도, 한국, 조선을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한다.
 - 2) 현재 ‘문명’은 통상적으로 다원적 문명을 전제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나, 본고에서는 18세기 영국, 프랑스에서 계몽주의와 결합하여 형성된 특정한 ‘문명’ 즉 유럽근대문명을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한다. 부득이하게 일반명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문맥에 따라 구분 가능하다.
 - 3) 朴殷植, 『興學說』 『謙谷文稿』(1901) ;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巖朴殷植全集』 제3권, 동방미디어, 2002. p. 348.
 - 4) 이상 朴殷植, 「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 『서우』 제1호, 1906.12.01.

것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는, 오래지 않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생존을 위한 길은 문명의 그 한 길인 것처럼 보였기에 그 길 위에서 내려올 수는 없었다. 물론 이쪽의 결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도 아니었다. 정점을 상정한 문명은 그 정점을 떠받쳐 줄 수많은 야만을 필요로 했으므로, 그들이 일으킨 문명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생존은 존재의 최소조건일 뿐이다.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 진리이든 선이든 생존 이상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으려 한다. 생존경쟁, 우승열패의 구호와 하나가 된 문명은 경쟁에 매진하도록 하는 행위의 원리를 제공했지만, 그 행위 원리를 도덕적으로 옳거나 선한 것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려웠다. 정점을 상정한 문명은 그 도달 정도에 따라 위계를 정했으므로, 그 논리 안에서 상위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문명의 전파자들이 그랬듯이 생존과 더불어 자존감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가 그 정글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그 행위원리는 한국인에게 존엄성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문명화가 존엄성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비유럽에서는 공통된 상황이었다. 재빠른 문명 수용으로 국면전환을 하고 성공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작한 메이지 일본은 전면적 문명화 노선이 지속할 만한 일이 아님을 곧 알아차리고 ‘동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궤도수정을 한다. 문명으로 ‘생존’을 할 수 있었던 일본도 그것으로 ‘자존’은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⁶⁾ 박은식의 자강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중국의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 역시 초반의 문명 학습을 뒤로하고, 유학을 새로운 세상에서도 통용될 가치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유학이 다시 보편원리로 통용되는 세상에서는 중국인 공자가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⁷⁾ 잠시 중화를 비하한 적도 있었지만, 중화의 주체로서 중국인의 자부심은 과거의 것으로 머물지

5) 같은 곳.

6) ‘동양’의 창출에 대해서는 스테판 다나가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참조.

7) 유학을 둘러싼 량치차오의 전면에 관해서는 이해경, 『천하관과 근대화론 : 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2002. 참조.

않았다.

일본은 ‘동양’을 차지할 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명목상 보편원리인 ‘중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자존’의 모색이 가능했다. 한때 조선이 소중화를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화라는 문화는 명분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이미 보편으로서 중화는 해체되고, 민족국가 시대에 중화는 중국에 속한 것이 되었다. 중화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유학은 조선의 전통을 형성하는 것이었지만, 유학이 새로운 시대에 부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한반도의 영광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본고는 박은식을 통해, 유럽근대문명의 주변으로서 그리고 중화의 주변으로서, 근대 시련기의 조선 지식인이 생존과 자존을 위해 어떤 모색을 했는지 살펴본다. 우선 그 모색은 시차를 두고, 중화와 문명이라는 두 거대문명에 대한 수용과 비판으로 나타난다. 그 두 거대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생존과 함께 자존의 충족도 기대했지만,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활로 찾기는 그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중국에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체계의 제시로 나아가리라 기대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새로운 가치체계를 제시하기 이전까지, 중화와 문명이라는 세계질서 구상을 어떤 자세로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한정한다.

본고는 거시적으로 박은식의 사상전변을 쫓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주로 박은식의 사상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박은식 연구⁹⁾와 차별성을 갖는다. 가령 사상전변을 배제하고 ‘교육과 식산’에 의한 ‘자강’ 사상을 다루게 되면¹⁰⁾ 박은식이 지속적으로 문명론자

8) 보편원리로서 중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이해경, 「청인(淸人)이 만나 두 ‘보편’ 문명 - 중화와 시빌라이제이션」, 『철학사상』32호, 2009.5 참조.

9) 대표적으로, 박은식에 관한 여전히 유용한 연구서인 愼鏞廈,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박은식의 교육구국사상”, “박은식의 사회관습개혁론”,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양명학론·대동사상” 등으로 장을 나눠 박은식을 소개하고 있다.

10) 박은식의 자강을 다룬 논문으로는 조종환, 「박은식의 애국계몽적 국권회복사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2.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박은식의 자강운동을 동도서기의 논리로 해석하였다.

였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은식의 양명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박은식이 주목한 양명학을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처리했다.¹¹⁾ 그 결과, 양명학을 박은식이 최종 도달한 이념이거나 마지막까지 지킨 이념으로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본고는 ‘자강’도 ‘양명학’도 한국의 생존과 자존을 위해 고투하면서 뒤로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밝힐 것이다. 당시 초미의 문제는 생존이었으나, 노도처럼 밀려드는 문명의 위력 앞에서 생존조차도 가능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 계속적으로 다른 활로를 찾는 것은 생존의 의지가 있는 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각이 있는 한 생존에의 의지는 노예의 상대로 생명을 부지한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존에의 의지는 자존에 대한 의지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 확보라는 문제의식에서 박은식의 사상전변에 주목하는 이러한 접근은, 거대문명이 충돌한 그 와중에서 한반도가 근대화해 투신함과 동시에 그 문명에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독자적인 앞날을 모색해 갔음을 보여줄 것이다.

II. 량치차오의 문명 탐색과 중화로의 귀환

박은식의 특징을 보다 선명히 조명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그 대비가 되어줄 량치차오의 경우를 간략하게 알아본다. 문명이라는 근대의 학습과 문명 비판이라는 근대의 극복, 그 두 방향 모두에서 량치차오는 박은식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했다. 량치차오는 중국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최고의 계몽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특유의 경쾌하고 힘 있는 문체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서도, 두터운 유학적 소양 덕인지 새로운 이야기를 이물감 없이 하는 재주가 있었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게다가 국권을 위협받는 비슷한 처지라는 동질감이 그의 언설을 조선에서도 호소력 있는 것으로 만

11) 대표적으로 박정심의 「白巖 朴殷植의 哲學思想에 관한 研究 —社會進化論의 受容과 陽明學의 對應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0.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박은식이 사회진화론과 양명학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로 동시기에 수용했다고 논의하고 있다.

들었을 것이다.¹²⁾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특히 중국지식인들에게 문명의 위력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그 문명은 경쟁에 의해 진화하는 것이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저들이 갖춘 실력을 갖춰야 했다. 문명의 힘을 인정한 량치차오는 그 경쟁력의 근원을, 물건을 제작하고 통상의 방법을 아는 “지식”(智)이라고 파악했다. 즉 이 지식은 근대유럽인들이 인간의 확실한 인식을 추구하면서 성취했다는, 윤리와 분리된 사물에 관한 근대적 지식이다. “승패의 근본은 힘에서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강(自強)을 논하는 사람은 민지(民智)를 넓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¹³⁾는 것이 량치차오의 시세 판단이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느냐 무지한 사람으로 남느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가 책임질 일임도 인지했다.¹⁴⁾ 그 지식은 유학의 지식처럼 내면을 반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얻어야 할 경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족국가가 경쟁하는 그 시대에, 개인의 지식이 축적되어 국가의 지식이 될 것이었고 곧 국력이 될 것이었다. 광서제의 협조 아래 제도개혁을 추진했을 때의 골자는 새로운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낼 교육제도,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관리등용제도의 개혁이었다. 무술변법의 개혁구상은 『변법통의』(變法通議, 1896~1899)의 연재를 통해 발표되었다.

그 제도개혁의 전망은 무술변법운동이 100여 일 만에 좌절되면서 끝이 났다. 일본에 망명한 량치차오의 애국활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제도개혁의 전망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왔다. 어떤 개혁구상이든 당장의 실현이 요원해진 상태에서 계몽의 내용이 달라졌다. 단적으로 경쟁력의 근원은 지식이 아니라 덕(德)으로 재설정된다. 1902년 2월부터 1906년 1월에 걸쳐 반월간지 『신민총보』에 연재된 『신민설』(新民說, 1902~1906)은 당면한 시대를 민족국가 간의 경쟁시대로 판단하고, 그 경쟁을 담당할 중국의 국민을 창출하려는 기획물이었다. 자유, 권리, 진취, 모

12) 량치차오의 글이 한국개화기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우림걸, 『한국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참조.

13) 『變法通議·學校總論』 『時務報』 제5책, 1896.09.17.

14) 『變法通議·論變法不知本源之害』 『時務報』 제3책, 1896.08.29.

험, 진보, 이익 등의 가치들이 선전된다. 선전한 가치만 보면 『변법통의』시절보다 더 급진적으로 근대주의를 관철시켰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치들이 모두 ‘덕’으로 자리매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덕은 특히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덕이라는 의미에서 ‘공덕’(公德)으로 명명된다. “지식교육이 융성해짐에 따라 도덕교육이 쇠퇴할 것이고, 서양의 물질문명이 남김없이 중국에 수입”되리라고 량치차오는 전망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중외고금의 것들을 참작하여 새로운 도덕을 만들”지 않는다면 중국인은 짐승으로 추락하리라¹⁵⁾고 우려했다. 그리고 그 우려에서 ‘덕’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신민설』은 ‘공덕’의 함양에 의해 “국가주의”에 헌신하는 ‘신민’ 창출을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그 ‘공덕’의 함양에는 “서양의 도덕”뿐 아니라 “중국의 도덕” 역시도 호출되었다.¹⁶⁾

그가 말하는 “중국의 도덕”이란 실질적으로 유학적 덕이었다. 이미 ‘덕’을 문명 성취의 열쇠로 평가하면서 중국적인 것에서의 회귀는 예견된 것이었다. “중국의 도덕”에 대한 량치차오의 기대는 『신민설』 연재 기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총 20절로 이루어진 『신민설』 가운데 제18절 「논사덕」(論私德)편에 이르러 량치차오는 “지와 힘은 성취하기가 쉬운데 오직 덕만이 대단히 어렵다”고 운을 뗀 후, 도덕은 이론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실행은 각각의 민족에게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학을 소환했다. 유학 가운데서도 과학의 습득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가진 시대에 적절한 것으로 양명학을 평가했다.

『신민설』 연재를 시작한 당초에 자신이 주력했던 ‘공덕 함양’이라는 호소가 효과가 없었다고 량치차오는 자평하며, 그 이유를 개인적인 덕 즉 사덕(私德)이 결여된 중국인이 유럽근대문명이라는 환경에 방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중국인이 “애국, 자유, 평등 등의 구두선을 호신부로 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더욱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량치차오는 양명학으로 순수한 마음

15) 「新民說・第五節 論公德」 『新民叢報』 제3호. 1902.03.10.

16) 『新民叢報』 제1호, 표지. 1902.02.08.

을 회복하자고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순수한 마음이란 자신의 이익을 피하지 않고 공적인 이익에 헌신하는 마음이다.¹⁷⁾ 이 시점에서 량치차오가 유학적 덕을 경쟁력 추구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이기심을 저지하는 일에서 유학의 역량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유학적 수양에 의해 이기심을 없애고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자는, 도덕의 힘에 의지한 국가주의를 구상한 것이다.

지식을 얻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것이 문명의 길이라고 안내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역시 문명수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목적지는 일본의 자주독립이었다.¹⁸⁾ 량치차오는 후쿠자와의 책을 통해 문명에 대해 학습했으면서도,¹⁹⁾ 후쿠자와가 야만의 증표로 거론한 ‘사덕’²⁰⁾을 문명으로 가는 열쇠로 삼았다. 후쿠자와는 야만의 표식이라고 했지만 량치차오로서는 비이기적인 심성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한다면 후쿠자와가 선택한 지식의 축적 없이도 문명에 도달하리라 판단했을 것이다.²¹⁾

사덕에 대한 재평가와 거의 동시에 양명학을 주목한 량치차오는,²²⁾ 양명의 ‘발본색원’(拔本塞源)론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개인의 이익추구 풍조를

17) 「新民說・第十八節 論私德」『新民叢報』제40・41합호. 1903.11.02.

18) 福澤諭吉 著, 『文明論之概略』, 「第十章・自國の獨立を論ず」 참조. 岩波文庫青102-1, 1995.(초판은 1975년 간행).

19) 단적으로 「新民說・第十二節 論自尊」『新民叢報』제12호. 1902.07.19. 첫머리에 “일본의 대 교육가인 福澤諭吉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獨立自尊’이라는 한마디 표어를 내걸어 德育의 최대강령으로 삼았다.”고 언급한다. ‘公德’과 ‘私德’의 용어와 분류도 후쿠자와에게서 온 것으로 보인다.

20) 후쿠자와는 마음을 경계로 하여 ‘사’와 ‘공’을 나누고 사덕은 타인과 교섭 없이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공맹의 교설” 역시 “마음을 닦는 윤리강상”으로서 “한 私人으로서의 자아에 효능이 크지만”, 개인의 마음으로써 공적 영역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惑溺이라고, 유학을 비판했다. 중국은 진시황이래로 공맹의 가르침만이 전해졌다고 하니, 이 비판은 당대 중국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福澤諭吉, 앞의 책, 「第四章・一國人民の智德を論ず」, 「第六章・智德の辨」 참조.

21) 후쿠자와의 지식과 량치차오의 덕을 대비한 논의는 이해경,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의 관점에서 본양계초(梁啓超)의 ‘公德’(公德)」, 『철학사상』46호, 2012.11.

22) 「신민설・제18절 論私德」(1903~4년)에서 덕육의 교본으로 양명학을 추천했으며, 이후 『節本明儒學案』(1905.11), 『德育鑑』(1905.12) 등에서 본격적으로 양명학을 소개했다.

수정할 정신으로 평가했다.²³⁾ 또한 주자학과 다른 양명학의 “간이직절”(簡易直切)함이 당시 새롭게 요구되는 과학과 작을 이를 마음공부의 장점이라고 평가했다.²⁴⁾

유학의 역할에 대한 량치차오의 긍정적 평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더욱 적극적인 것이 된다. 전쟁 뒤의 유럽을 둘러 본 량치차오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국가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한다.²⁵⁾ 나아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대립시키고, 콩트의 실증주의와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물질주의 혹은 유물론” 또한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²⁶⁾ 이 여행 경험은 곧바로 유학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구상하는 데로 이어진다. 1921년 출간된 『선진정치사상사』(先秦政治思想史)에서 량치차오는 세계의 미래를 지도할 정신으로서 공자의 사상을 소개한다.

그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조화, 개성과 사회성의 조화라고 정리했다.

공리주의, 유물사관,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당시를 풍미하던 이념들은 모두 정신보다 물질을 우위에 두는 물질주의라고 정리하고, 이들은 장차의 세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한다.²⁷⁾ 반면, 유가의 균안주의(均安主義)야 말로 과학의 융성으로 초래된 풍요로운 물질적 조건에서 균형 있는 물질생활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²⁸⁾ 또한 국가주의, 사회주의는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를 기도하는 이념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유학의 ‘인’(仁) 사상이야말로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이라고 추천한다. 이러한 유학을 세계로 확대하여 정신생활과 물질생활 사이의 조화, 개성과 사회성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와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큰 책임²⁹⁾이라고, 량치차오는 지구의 미래에

23) 「신민설 · 제18절 論私德」 『新民叢報』제46·47·48합호. 1904.02.14.에서 『전습록』 143장의 ‘발본색원’론을 인용하면서 이를 애국과 연결하여 논하였다.

24) 『德育鑑』 「知本第三」; 『飲氷室專集』권26, p. 24.

25) 『歐遊心影錄節錄』(1919); 『飲氷室專集』권23, p. 9.

26) 같은 책, p. 12.

27) 『先秦政治思想史』(1922); 『飲氷室專集』권50. pp. 182~183.

28) 같은 책, p. 183.

29) 같은 책, p. 184.

대한 중국인의 역할을 자부했다.

량치차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문명’의 종언을 알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아주 짧은 시기 ‘문명’에 위축되어 유학의 전통을 비하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인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오랜 전통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버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알아차리고 있었다.

Ⅲ. 박은식의 문명 수입 노력

박은식이 본격적으로 잡지를 통해 계몽활동을 시작한 1905년,³⁰⁾ 량치차오의 초기 개혁이론은 박은식의 모범이었다. 1907년 1월에 간행된 『서우』 제2호부터 박은식은 량치차오의 『변법통의』를 번역해서 연재했다.³¹⁾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변법통의』는 유럽근대문명의 원천을 ‘지식’이라고 파악하고, 그 ‘지식’을 국민적 차원에서 보급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내용을 담은 글이다.

박은식이 참여했던 『서우』(1906.12~1908.01), 『서북학회월보』(1908.06~1910.01), 『대한자강회월보』(1906.07~1907.07) 등은 ‘교육’과 ‘세력’의 확장을 통한 ‘자강’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세계인류가 생존경쟁으로 우승열패하는 때, 국민의 지식과 세력을 비교하여 영욕과 존망을 가른다”고, 박은식은 자신의 시대를 파악하고 동시에 자신의 당면과제를 설정했다. 개명한 나라의 민족은 “교육으로 지식을 개발하고 식산으로 세력을 증진”한다고,³²⁾ 지식과 세력, 교육과 식산을 병렬해서 언급하기도 하지만, “세력은 지혜³³⁾에서 나오고 지혜는 학문에서 나오는”³⁴⁾ 관계이다. 즉 식산으로

30) 박은식의 언론활동이 1905년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노관범, 「1875~1904년 朴殷植의 朱子學 이해와 教育自強論」, 『韓國史論』43, 2000. 참조.

31) 「變法通議」의 「學校總論」이 같은 이름으로 『서우』 제2호(1907.01.01.)~제5호(1907.04.01.)에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되어 연재되었으며, 「論幼學」이 역시 같은 이름으로 『서우』 제6호(1907.05.01.)~제10호(1907.09.01.)에 연재되었다. 「變法通議」는 ‘自序’ 빼고 총 13개의 절로 이루어진 글이니, 그 가운데 일부분만을 소개한 것이다.

32) 朴殷植, 「大韓精神」, 『대한자강회월보』 제1호, 1906.07.31.

세력을 증진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은 교육이고 교육을 통해 쌓아야 할 지식이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지식이란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변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이른바 근대적 지식이다. 그가 파악하기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족의 지식정도에 따라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은 공례”였다.³⁵⁾ 박은식 역시 초기 량치차오와 마찬가지로 우승열패의 세상에 경쟁력의 원천을 새로운 지식으로 본 것이다.

무술변법을 앞에 둔 량치차오는 제도개혁의 비전을 갖고, 정부차원에서 의 학교 설립과 그 학교에서 길러진 새로운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관리등용제도의 개혁을 기획했다. 새로운 시대의 경쟁은 민족국가 간의 전쟁이고, 그 경쟁력은 민족 전체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으므로, 국가 차원의 교육은 필수였다.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은 이미 독립국이라고 할 수 없었다. 『서우』창간호(1906.12.01.)에서 박은식은 서우학회의 창간취지를 결연하게 밝힌다. 박은식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중지(衆智)를 계발하는 일은 단일한 교과과정과 장기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임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서우학회를 결성했다고 밝힌다. 평안도와 황해도 사람이 중심이 된 단체였지만, 한성에 중앙 사무소를 차리고 매월 잡지를 발간해 교육받을 연령을 지난 사람까지 망라하여 “보통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용이하게 서방견문을 접수해서 교육에 반영하려는 것도 한성에 사무실을 차린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즉 “중앙에서 [교육을] 추구하고 유인하는 기관”이 되기를 자임한 것이다.³⁶⁾

33) ‘지혜’는 오늘날 ‘지식’으로 통용되는, 당시 용어이다. 직접적인 연관을 찾은 것은 아 니나, 일례를 들면 福沢諭吉의 『文明論之概略』에서도 “智란 智慧로 서양말로는 인텔 렉트”(岩波文庫青, p. 119)라고 했다.

34) 朴殷植, 「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 『서우』 제1호, 1906.12.01.

35) 朴殷植, 「社說」 『서우』 제15호, 1908.02.01.

36) 朴殷植, 「本會趣旨書」 『서우』 제1호, 1906.12.01.

박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한 지식은 “식산”의 “세력” 즉 경제적 힘이라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는 서양의 제조품, 신법률, 신학문 등은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평하고, 이를 거부하는 유럽들을 비판한다. 점에 의지해서 일의 성패만 묻는 잡술가들을 향해서도 실제사업과 실제학문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한다.³⁷⁾ 점점 기울어가는 국세에 “정부와 인민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말해봤자 무익”하니, 앞으로의 방침이나 세우자고 하는데, 실제로 강구할 수 있는 방침이란 인민이 각자 자활방식을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는 것뿐이었다. 박은식은 “인민이 생활상으로 자립함으로써 국가의 자립을 이뤄야 한다”고 호소했다.³⁸⁾ 교육과 지식은 생활상 자립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 그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니 재야에서 교육 사업을 일으키고, 그를 바탕으로 인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자립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자립을 도모한다 해도, 그 세상이 밝은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박은식은 “생존경쟁은 천연(天演)”이라고,³⁹⁾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전개로 받아들이면서도, “덕을 숭상한다는 미국”이 필리핀을 침략하는 것을 두고 “입은 보살이지만 행동은 야차”라고 논평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자강해야 할 뿐 남의 원조를 바라면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경계였다.⁴⁰⁾ 그는 생존경쟁, 우승열패가 “인의도덕의 이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의도덕이라는 것도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 강건하고 용감한 자가 온전히 갖는 것이고, 우매하고 나약한 자는 가진 적이 없는 것”이라고,⁴¹⁾ 인의도덕을 경쟁력 뒤로 밀어두어야 했다.

1905년 이전에도 박은식은 자강을 위해서 신학문 즉 유럽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1904년 출간된 『학규신론』(學規新論)은 그 제목부터 학문과 교육에 관한 새로운 논의임을 표방했다. 여기에서도 박은식은 당시

37) 朴殷植, 「舊習改良論」 『서우』 제2호, 1907.01.01.

38) 朴殷植, 「人民의生活上 自立으로 國家가 自立을 成함」 『서우』 제8호, 1907.07.01.

39) 朴殷植, 「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 『서우』 제1호, 1906.12.01.

40) 朴殷植, 「自強能否의 問答」 『대한자강회월보』 제4호, 1906.10.25.

41) 朴殷植, 「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 『서우』 제1호, 1906.12.01.

조선의 교육이 책을 읽거나 글자 베껴 쓰기와 같은 수동적 방식에 머무른다고 비판하면서, 마음을 열고 신체를 기르는, 본성에 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⁴²⁾ 나아가 재주와 기예를 다양하게 길러야 함도 강조했다.⁴³⁾ “나라의 운명은 학문에 달려있다”(論國運關文學)는 소제목 하에, 박은식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부강과 성쇠가 학문에 달려있음을 각 나라의 예를 들어 논하고, 조선이 배워야 할 학문으로 농학, 상업학(商學), 광물학, 법률학, 군사학, 과학(格致學) 등을 든다.⁴⁴⁾ 여기까지 보면 1905년 이후 자강의 기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박은식이 신학문을 수입하자는 그 근저에는 그가 “종교”, “부자의 도”(夫子之道)⁴⁵⁾라고 일컬었던 유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새로운 학문을 해도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타인의 본성을 실현하고 사물의 본성을 실현하는”⁴⁶⁾ 일이었다. 박은식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부자(夫子)를 종사로 섬겨, 삼강오륜이 나라의 버리가 되고 육경사서가 오래도록 도통을 이어오며 예의를 밝혀 풍속과 교화를 바로세운지 오래되었다.”⁴⁷⁾ 즉 박은식은 이 시점에서는 유학자의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실용차원에서 서양의 학문을 도입할 것을 생각했다. 유학자의 세계관을 유지했다는 것은 인간의 선한 본성에 우주적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선한 본성을 현실에서 드러내면 그대로 윤리적인 세상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세계관이라면 좋은 세상을 만들 원동력은 “인의도덕”이므로, “인의도덕”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다.

했수로는 바로 뒤라고 할 수 있지만 을사늑약을 경험하면서 박은식의 언설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생존경쟁”이라는 정글의 원리였다. 그 결과 “인의도덕”은 좋은 세상을 만들 원동력이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 강

42) 『學規新論』; 『白巖朴殷植全集』 제3권, p. 462.

43) 같은 책, 같은 곳.

44) 같은 책, p. 478.

45) 같은 책, p. 489.

46) 『學規新論』 「論維持宗教」(『白巖朴殷植全集』 권3, p. 478)의 글로, 원문은 “盡己之性, 盡人之性, 盡物之性”인데, 출전은 『중용』이며 인용이 그대로는 아니다. 『중용』: “能盡己之性, 能盡人之性, 能盡物之性”.

47) 『學規新論』; 『白巖朴殷植全集』 권3, p. 481.

건하고 용감한 자”라는 조건에서 파생되는 하위 가치가 되었다. 이미 “자신의 본성을 다함으로써” “사물의 본성도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도덕적이지 않음을 인지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도덕적 판단은 접어두고 생존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던 것이다.⁴⁸⁾ 박은식은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고 자술한다.⁴⁹⁾ 그러나 끝내 대한제국에서 의무교육의 실시를 볼 수는 없었다.⁵⁰⁾ “우리 전국 사회에 상류와 중류와 하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받아 보통학문과 보통지식이 발달한 날에는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요, 우리나라의 자립을 극복할 것”⁵¹⁾이라고, 박은식은 교육을 통한 자유와 자립을 열망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 “인의도덕”의 가치도 뒤로 둔, 경쟁력 고양을 위한 교육이었다.

IV. 양명학으로 문명 넘어서기

대한 제국은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배였다. 지식이 자랄 터도 마련되지 못했으니 그 결과를 보는 일도 요원했다. ‘지식’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박은식의 ‘지식’ 운동은 변화를 보인다. 1909년 3월 1일의 「유교구신론」을 기점으로, 10월 1일의 「동양의 도학원류」, 11월 1일의 「공부자탄신기념

48)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관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4년의 『학규신론』도 부분적으로 1901년 간행된 『겸곡문고』(謙谷文稿)에 실린 것을 보완한 것이다. 『謙谷文稿』의 「興學論」, 「宗教說」, 「皇室學校私議」, 「學識」 등을 보완하거나 내용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관해서는 김현우, 「『학규신론』에 나타난 박은식의 경학관 연구 — 『논어』 인용 지문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 『民族文化』 제43집, 2014. 참조.

49) 朴殷植, 「祝義務教育實施」 『서우』 제7호, 1907.06.01.

50) 1906년 대한자강회가 “의무교육실시건의서”를 제출하여 중추원을 거쳐 강의에서도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박은식은 『서우』 제7호 (1907.06.01.) 「祝義務教育實施」를 실어 그 실시를 축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제통감부가 저지하여 실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慎鏞廈,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 pp. 72 ~ 73 참조.

51) 朴殷植, 「勞動同胞의 夜學」 『서우』 제15호, 1908.02.01.

회강연」,⁵²⁾ 그리고 1910년의 『왕양명선생실기』(王陽明先生實記)⁵³⁾에 이르기까지, 박은식은 유학, 특히 양명학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선전한다. ‘지식’에서 양명학으로, 박은식은 량치차오가 밝았던 행보를 뒤따라갔다. 망국의 현실을 눈앞에 두었다는 점에서, 량치차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서의 전환이었다.

「유교구신론」에서 박은식은 유교가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인민사회에 보급하겠다는 정신의 부족, 적극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자세의 부족, 이론의 번쇄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핵심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면 유학이 다시 꽃피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첫 번째와 관련하여 박은식은 유학이 역사적으로 민지의 개발과 민권의 신장에 힘쓰지 않은 것은 백성을 중히 여기는 맹자의 사상(民爲重)이 계승되지 못하고 군권을 중히 여기는 순자의 사상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민지를 개발하고 민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량구신’(改良求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조선이 주자학에 입은 은혜는 크지만, 당시처럼 각종 과학을 해야 하는 시대에 그 과학 외에 본령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양명학이 절실하다고 제안한다. 박은식은 각종 과학은 ‘지육’(智育)이고 ‘심리학’(心理學)은 ‘덕육’(德育)으로,⁵⁴⁾ 지육과 덕육은 섞일 수 없는 각각의 영역이라고 양립시킨다.

민지와 민권을 확장하고, 한편에서 양명학으로 본령공부를 한다면 장차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박은식의 기대는 다음과 같은 전망으로 이어졌다.

과거 19세기와 지금 20세기는 서양문명이 대발달한 시기요, 장래 21~22세기
는 동양문명이 대발달할 시기다. 우리 공자의 도가 어떻게 끊어지겠는가.⁵⁵⁾

52) 「儒教求新論」 『서북학회월보』 제10호, 1909.03.01. ; 「東洋의 道學源流」 『서북학회월보』 제16호, 1909.10.01. ; 「孔夫子誕辰紀念會講演」 『서북학회월보』 제17호, 1909.11.01.

53) 『왕양명선생실기』는 1910년에 저술되어 최남선이 창간한 월간잡지 『少年』 제4년 제2권 (1911년 5월 15일자)에 전문이 실렸다.

54) ‘심리학’(心理學)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 즉 철학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서양에서는 루터가 대담함과 열혈정신으로 유럽을 암흑에서 구했다는 일이 ‘개량구신’의 일례로 소개된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공자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서 보듯 수입된 정신이 아니라 유학 내부의 정신이라고 덧붙인다. 민지, 민권, 과학, 지육 등으로 근대의 달라진 환경을 정리하며 인정하고, 이들의 추가와 함께 ‘본령의 학문’을 담당할 양명학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지육과 덕육의 병행으로 “동양문명”이 발달할 시기가 오리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7개월 뒤의 「동양의 도학원류」에서 유학에 대한 평가는 더 증폭된다. 박은식은 ‘도학’(道學) 즉 유학⁵⁶⁾을 “근본의 공부로서 본성을 알고 하늘을 아는, 모든 학문의 두뇌를 세우는 학문”으로 규정한다. 그리하여 “도학이 없으면, 과학상 정밀한 탐구가 있더라도 결국 속학의 틀에서 사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제 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은 도학과 병립하는 학문이 아니라, 도학의 지도를 받아야 할 지위로 내려간다.

개인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도학이 밝혀지지 않으면 오직 공리를 쫓고 사기를 사용해서 인도를 능멸하고 천리에 역행할 것”이라고, 도학의 부재상황을 파탄으로 진단한다. 직전까지 추구하던 ‘지식’을 “공리”, 나아가 “사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생존경쟁에 대해 유보했던 “인의도덕” 여부에 대해 생존경쟁이 근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윤리와 무관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직전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종사했던 그 생존경쟁은 “부자형제 사이도 서로 원수로 여길” 수 있는 패륜에 이르는 것이었다.⁵⁷⁾

그 한 달 뒤의 「공부자탄신 기념회강연」에서는 유학에 대한 더욱 대담한 평가가 이어진다. “세계진화가 고도로 발달하면 반드시 대동교(大同教)가

55) 朴殷植, 「儒教求新論」 『서북학회월보』 제10호, 1909.03.01.

56) 박은식은 이 글에서 복희, 기자, 우, 문왕, 무왕, 주공, 맹자, 동중서, 정자, 주자 등을 도학의 원류로 서술하고, 그 마지막에 왕양명의 ‘致良知’설과 ‘知行合一’등을 두면서 “東洋道學界의 天人合一의 道를 先後 發明한 源流”라고 끝맺었다. “未完”으로 표기되었으나, 이후 이어지지 않았다.

57) 「東洋의 道學源流」 『서북학회월보』 제16호, 1909.10.01.

세상에 퍼져 천하위공의 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조선 유학자의 이론을 한문과 영문으로 번역하여 세계에 파급시키자고 제안한다. “대동교”란 공자가 주창했다는 ‘대동사상’을 내건, 유학을 대신한 이름이다. 이처럼 유학의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현재는 모든 사업이 ‘실행’이 중요하므로, “독서만 할 줄 알면서 얌이 앞서야 실행이 뒤에 온다고 하면 틀린 것”이며, “지행합일”이 최상의 학문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변화하는 사태(人情事變)에서 연마하지(磨鍊) 않으면 쓸모없는 학문”이 된다고, 양명학의 ‘사상마련’(事上磨鍊)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 식산의 실행을 역설한다.⁵⁸⁾

이처럼 양명학이 현 시대의 유학임을 이야기하던 박은식은 1910년에는 본격적으로 『왕양명선생실기』라는 단행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박은식은 왜 지금 양명학인가에 대해, 과학을 비롯해 습득해야 할 지식이 늘어난 당시에, 양명학의 “간이진절”(簡易真切)한 방법이 아니라면 도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전의 생각을 반복해서 기술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량치차오의 말을 빌려 온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박은식은 견문지(見聞知)와 덕성지(德性知)라는 유학의 용어⁵⁹⁾를 가져와, 앞의 「동양의 도학원류」에서 사용된 ‘과학’과 ‘도학’을 대신한다. 「동양의 도학원류」에서는 도학으로 과학을 지도할 것을 구상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견문지를 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옛날부터 성현들은 인의의 가르침으로 천하의 인심을 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후세의 풍속과 기풍이 더욱 사치한 데로 쏠리고 인욕이 더욱 횡행하여, 산을 넘을 만큼 큰 홍수가 천지에 가득했다. 게다가 인류의 생존경쟁이 오직 지식과 기능의 우열 만에 따르니, 말본색원(拔本塞源) 주의가 어찌 우월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성현은 천하의 다툼을 그치게 하고 천하의 난에서 구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았으니, 어찌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58) 「孔子誕辰紀念會講演」 『서북학회월보』 제17호, 1909.11.01.

59) 지의 영역을 ‘덕성지’와 ‘견문지’로 나눈 단초는 『中庸』의 “尊德性而道問學”에서 처음 보이는데, 송대의 張載가 견문지는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덕성지는 “性과 天道”로 상징되는 형이상학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나누었다. 『正蒙』 「大心」: “見聞之知, 乃物交而知, 非德性所知, 德性所知, 不萌於見聞”.

경쟁의 전쟁터에서 각을 세우고 싸워 민생의 화를 보태겠는가. 이것이 바로 성인의 뜻이 인의가 되는 이유이다. 이 발본색원론은 근세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무와 인류의 생활에서 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의 성질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에 머물고 공공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이 폐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⁶⁰⁾

보통교육의 확대를 통해 생존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직전까지의 일이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경쟁의 전쟁터에서 각을 세우고 싸워 민생의 화를 보태”는 일로 바뀌어 있다. 경쟁의 전쟁터에 종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역시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에 머물고 공공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세대로는 사사로움과 인욕에 추동되어 지식과 기능의 우열을 다투는 폐단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견문지의 궁정적인 역할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박은식은 양명의 ‘사상마련’(事上磨鍊)을 해석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준다.

선생의 학문은 본체의 지를 얻는 것이므로 견문지를 늘릴 거름이 없으니, 당연히 실용과는 좀 멀어질 것이지만, 일에 임해서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는 훨씬 향상된 법도를 적용하니, 일층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 정신을 쏟는다. 예컨대 좋은 쇠가 불에 들어가면 더욱 광채를 내는 것과 같다. 견문 지식을 쌓는 세상의 선비보다 선생이 그 효과가 훨씬 많은 것은 왜인가? 세상 선비들의 견문지식은 많아서 넘치면서도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 선비들이 듣고 보고 안 것은 겉돌고 넘치며 절실하지 못하여 말로 설명하는 데서 떠나지 못한다. 선생의 본체공부는 실제 일에서 같고 닦아(事上磨鍊) 정밀하고 밝음을 이루어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서 구별하는 앎이 천하의 시비에 어둡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천하의 이해관계 때문에 손실되지 않으며, 손이 가는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웅대하다. 그러므로 ‘실제 일에서 같고 닦는 것’이 곧 앎이며 실행이고, 움직임이며 고요함이다.⁶¹⁾

박은식의 이해에 의하면, 양명이 알려주는 ‘사상마련’의 공부는 견문지가 아니면서도 견문지의 효용을 넘어선다. 게다가 견문지에는 없는 “천하

60) 『왕양명선생실기』; 『白巖朴殷植全集』권3, pp. 606~607.

61) 『왕양명선생실기』; 『白巖朴殷植全集』권3, p. 588.

의 시비”, “이해관계 때문에 손실되지 않”는 확고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상일에 무능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웅대”한 일처리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능력이라면 건문지는 따로 필요 없다.

박은식은 변화하는 세상에 열려있는 양지라는 주체성과 함께 이 사상마련(事上磨鍊) 공부가 당시 한반도에 시의적절한 양명학의 장점이라고 파악했다.⁶²⁾ 발본색원을 통해 덕성지를 확립하고, 그 덕성지는 “공공의 이해”를 지향하며 사상마련의 공부에 힘쓸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와 같은 전쟁터와는 다른 세상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박은식은 유럽근대문명을 배워 우승열패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우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전쟁터에서 우자가 될 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점점 확실해져가는 국권상실이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박은식은 생존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인의예지와도 멀어지는 그 문명의 길을 패륜의 길이라고 비판하며 양명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국권의 상실이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어 가는데, 새로운 지식의 추구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양명학으로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과 함께 인의예지의 인간의 길도 열어갈 수 있기를 절망적으로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적 지향이 당장의 현실을 얼마나 바꿀 수 있었는지는 젓혀두고라도, 양명학이라는 유학은 과연 한반도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V. 중화주의의 극복, 그리고 민족의 다른 미래

유럽근대문명은 한반도로서는 그 좋음을 알기도 전에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박은식은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파악했지만, 그 지식이 가

62) 실제로 박은식이 양명학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량치차오와 일본의 다카세 다케지로의 영향이 있다. 시기적으로 다카세 다케지로가 가장 앞서고 일본에 망명해있던 량치차오가 그에게 자극받아 양명학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박은식의 양명학 평가에 관해서는 이해경,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사상』55호, 2015. 참조.

저울 결과는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강함 정도였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것이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음미할 기회도 없었다. 더구나 박은식에게는 그 지식을 키울 기회조차 변변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지식의 축적이 여의치 않은 와중에, 량치차오와 마찬가지로 박은식은 한 쪽으로 치우 두었던 유학을 다시 불러내어 유학에게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 그 역할이란 태생적으로 삶의 지혜와 분리되어 태어난 문명의 지식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근대문명, 유럽의 과학이 유학의 심성학 아래로 포섭되는 것을 구상한 것이다. 나아가 양명학만으로도 변화한 현실에 적합한 실용의 지식을 포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은식에게 유학은 근대문명을 만나기 이전의 유학과 달라져 있었다. 량치차오에게 유학과 중화주의의 회복은 공자와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재편할 수 있는 전망을 주는 것이었지만, 박은식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천하’가 존재 전체이고 중화가 그 전체를 포괄한다고 생각하던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민족국가의 시대였고, 천하는 전체가 아니라 중국이었고 중화주의는 중국중심주의였다. 대동교 활동도 잠시,⁶³⁾ 명실 공히 국권을 잃고 만주로 망명한 박은식은 더 이상 대동교 신도로 머물 수 없었다. 조선의 유학이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은식은 더 이상 량치차오를 본보기로 삼을 수 없었다.

대종교(大倥教) 신자의 집에 머물렀던⁶⁴⁾ 영향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은식은 만주에 가서 대종교 신도가 된다.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모시면서 박은식은 민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자연히 중화주의 즉 중국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유학은 더 이상 한반도의 가치가 될 수 없었다.

1911년 박은식은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 「천개소문전」(泉蓋蘇文傳), 「명림답부전」(明臨答夫傳) 등, 몇 편의 영웅전을 썼다. 「몽배금태조」

63) 1909년 9월 11일 창립된 대동교는 1910년 8월에 해산하였다. 대동교의 창립 상황과 운영 및 해산에 관해서는 김순석, 「박은식의 대동교 설립운동」 『국학연구』제4집, 2004. 참조

64) 남만주에서 대종교의 제3세 도사교인 윤세복(尹世麟, 1881~1960)의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윤세복은 박은식의 「몽배금태조」에 서문을 썼다.

는 백두산에서 발흥한 금나라 태조가 단군의 후손으로서 한반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픽션이다. 이 글은 형식상으로 그 이전까지 구국에 대해 박은식이 품고 있던 생각을 대변하는 ‘무치생’(無恥生)과 무치생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길을 제시해주는 금태조와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이적’으로서 중원을 차지했었던 금나라의 시조가 주인공으로, 더구나 한반도의 조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직전까지 박은식의 생각이 교육과 식산에 의한 세력의 확대, 양명학적 덕성지에 의한 분발 등이었다면, 금태조가 제시하는 입장은 일단은 중화주의의 탈피와 민족주의의 고취였다.

박은식은 금태조의 입을 빌려 조선 유학의 모태인 송나라, 그리고 유학과 중화주의를 비판한다. 금태조는 송나라가 도덕원리, 중요절의, 존화양이의 기운이 넘치는 나라이면서도 자신이 중원을 함락시켰을 때 송 황제를 위해 절의를 지켜 죽은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었다고 비웃는다. 또한 자신이 중원을 함락시키기 전에는 이적이라고 멸시하더니, 이후에는 자신을 성인이라고까지 칭송하는 비굴함을 보였다고 역겨워 한다. 그는 송나라의 유학 기풍에 대해, 말만 앞세움으로써 명예를 도적질하여 진실이 소멸되고 허위의 악풍만이 자라났다고 간단히 정리한다.⁶⁵⁾

그런데 송나라의 학문과 문장은 인정할 만 하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송나라의 학설을 따른 조선은 어떠한가? 조선 사람들은 맹종할 줄 알뿐, 스스로의 학문과 문장도 갖추지 못하고 한갓 중화(華)만 숭상하는 폐단으로 더욱 허위를 키웠다고 한심해 한다. 금태조는 조선인들의 중화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조선의 유생이 주창하는 존화양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세계만국의 모든 사람이 모두 자기 나라를 존중함으로써 의리를 삼는 까닭에 중국인은 존화양이를 주장하거니와, 오늘날 조선 사람들은 자기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즉 중국을 존중하는 것으로 일대 의리로 생각하니 이는 자국의 정신을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⁶⁶⁾

65) 「몽배금태조」 『白巖朴殷植全集』권4, p. 181.

66) 같은 책, p. 182.

중국인의 “존화양이”가 분명하게 민족주의로 정리되고, 조선인은 민족주의를 모르는, 오히려 자국의 정신을 소멸시키는 한심한 종족으로 비판되고 있다. 박은식은 드넓은 만주가 조상의 영토였는데 그것을 오랑캐의 것으로 만들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채 스스로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 조선 유학자들을 향해, “이른바 ‘예의의 나라’는 조상의 공덕을 기념하지 않는 자의 구실일 뿐이고, 이른바 소중화는 타인의 노예를 스스로 감수하는 자의 휘호인가”⁶⁷⁾라고 비판한다. “말만 높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여 세상을 속여 이름을 도적질하는 무리”일 뿐인 유생이 “쓸데없는 말과 걸치레로써 어찌 백성을 구제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있겠는가”⁶⁸⁾라고 하니, 유학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접을 듯하다.

「천개소문전」에 이르르면 유학에 대한 비판은 더 심해진다. 천개소문 즉 연개소문 역시 금태조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굴복시킨 패기 있는 영웅이었다. 박은식은 연개소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풍토는 유학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한다.

과거 오백년간 국민이 태두처럼 떠받든 자가 유럽과요, 국민을 죽이고 살리는 기관을 장악한 자는 귀족당이다.유럽과에서는 일찍 연구를 거듭하여 국민의 사상을 계발한 자도 없었고 역사를 발휘하여 국민의 성격을 배양한 자도 없으며 정학(政學)을 연구하여 국민의 이익을 공급한 자도 없었다. 다만 당송사상의 내용 없는 문장(浮文)과 내용 없는 형식(虛式)을 읊조리다 그 독을 퍼뜨려 일반사회의 기풍을 소진케 했을 뿐이다.⁶⁹⁾

나아가 유학은 “오백 년 동안 영웅의 씨를 말리고 베어 없애 민지를 굳혀 막아버리고 민기를 속박”하였고, 그 결과 “20세기 오늘에 이르러 단군대황조의 자손 4천만 민중은 광대한 천지간에 붙어 살 곳을 잃고 말았”으니,⁷⁰⁾ 유학은 망국의 원흉인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나아갈 길은 실용적인 학문의 추구하고 함께 민족주의의

67) 같은 책, p. 169.

68) 같은 책, p. 180.

69) 「천개소문전」 『白巖朴殷植全集』권4, p. 341.

70) 같은 곳.

고취인가? 맹목적인 문명 지향을 반성하고 양명학의 덕성지를 필요로 하던 노선에서, 박은식은 민족주의를 고취함으로써 다시 민족경쟁력을 최고로 평가하는 노선으로 돌아온 것인가?

그런데 「몽배금태조」에서 요청된 것은 민족주의에 머물지 않았다. 다음은 금태조의 말로, 생존경쟁과 만물인체의 인을 특이한 방식으로 공존시키고 있다.

동양의 학가(學家)는 하늘이 낳은 만물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으니, 자라는 것은 배양하고 넘어지는 것은 뽑아버리라고 했다. 서양의 학가는 물(物)이 경쟁을 하면 하늘이 택하여 적자를 생존케 한다고 했다. 대개 하늘의 도는 모든 중생을 아울러 낳고 길러 모든 것에 후하고 박하게 함의 구별이 없다. 도덕가는 이를 원본으로 삼아 만물일체의 인을 발휘하고 추진하여 천하의 경쟁을 그치게 함으로써 구세주의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만물을 낳아 모두 함께 길러 서로 피해가 없게 한 것이지만, 그 물이 스스로 커나갈 힘이 있는 자는 생존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생존을 얻지 못할 것이다.⁷¹⁾

동양과 서양이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생존경쟁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경쟁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양에서도 생존경쟁의 현실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동과 서를 넘어, 하늘의 도를 원본으로 삼는 도덕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가를 상정함으로써, 현실의 자력 생존의 세상과 도덕가의 “구세주의”의 세상을 이원화 하고 있다. 그 구세주의가 구체적으로 현실과 어떤 연관을 갖고 어떤 경로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박은식은 현실의 경쟁과는 다른 가치를 상정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역사의 진행에 대한 전망은 위의 가치 설정과 맥을 같이 한다. 극심한 전쟁 뒤에 묵자의 비공론(非攻論)이 등장하고 극심한 교황의 압제 뒤에 루터의 자유설이 주창되었듯이, 또 극심한 군주전제 뒤에 루소의 민약론이 등장했듯이, 제국주의의 참화 뒤에 평등주의가 등장할 것이라고, 박은식은 금태조의 입을 빌려 예상한다.

71) 「몽배금태조」 『白巖朴殷植全集』권4, 176.

(...)다윈이 강권론을 제창함으로써 이후 소위 제국주의가 세계에서 들도 없는 기치가 되어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종족을 멸하는 것을 당연한 공례로 삼았다. 이에 따라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화로 말미암아 극도로 비참하게 되었으니, 진화라는 관점에서 추론해 보더라도 평등주의가 부활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런즉 오늘날은 강권주의와 평등주의가 바뀌는 시기이다. 이때를 맞이하여 그것이 극도로 된 상황에서 극심한 압력을 받는 것이 우리 대동민족이며, 또 압력에 대한 감정이 가장 극렬한 것도 우리 대동민족이다. 그러한 이유로 장래에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를 호령할 자가 바로 우리 대동민족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⁷²⁾

고난의 극한을 경험한 자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만든 것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그에 동반된 극한의 노력 때문일 것이다. 박은식은 “압력에 대한 감정이 가장 극렬한” “대동민족”이 현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나아가 제국주의가 만든 불행을 극복하고 “평등주의”의 주동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박은식은 ‘민족’의 분발을 염원하면서도 그 분발의 결과로, 제국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열어가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VI. 왜 보편적인 가치를 묻는가?

박은식으로서 민족주의를 놓을 수는 없었다. ‘민권’이든 ‘민지’든 근대 문명이 알려준 좋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민족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제국주의적 탐욕이 식민지를 개척해 가는 것이었지만, 그 명분은 민족국가가 우승열패하는 진화의 장이라는 것이었다. 민족주의를 놓을 수도 없었지만, 민족주의의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중화주의도 유럽근대문명도 비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화주의나 문명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다.

1909년 양명학을 선창할 때부터 문명에 대한 박은식의 회의는 본격화 되

72) 같은 책, p. 213.

었다. 명실 공히 국권을 잃고 민족주의의 고취가 절실했을 때, 박은식은 유학 역시 중화주의의 산물이며 근대중국의 중화주의는 중국의 민족주의 일 뿐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의 밝은 앞날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모르지 않았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길은 한국 민족주의의 고취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민족주의가 성공적으로 뻗어간다고 해도 자존감까지 충만한 미래를 그리기 어려웠다. 양명학을 선창할 때부터 박은식의 일련의 글들은 한편에서는 민족주의를 고취하면서,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에 포괄되지 않는 다른 요소를 품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한편에서 박은식은 동시에 민족을 넘어선 보편의 가치를 찾고 있었다.

1911년 작품으로서 고구려인 ‘명림답부’를 다룬 「명림답부전」은 고구려가 한반도의 “4천년 역사에서 가장 자주독립의 자격이 완전하여 신성한 가치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어진, 다분히 민족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작품이다. 특히 명림답부는 선교(仙敎)라는 종교계 출신으로서 구국구민(救國救民)주의를 실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명되었다. 박은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도자는 덕성지를 필수로 갖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은식은 명림답부를 “영웅호걸과 인인군자의 자격을 합하여 완전무결한 사람”⁷³⁾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도 위와 같은 민족주의와는 또 다른, 독특한 심상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 글의 「서론」에서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금일에 이르러 고구려 역사를 숭배하고 기념하여 우리의 인(仁)과 우리의 법신(法身)과 우리의 곡신(谷神)과 우리의 영혼(靈魂)이 이 세상에 부활하여 인류자격에 참여할 것이다. 만일 이 인과 이 법신과 이 곡신과 이 영혼이 전몰하고 다만 사대육신이나 세상에 기대고 있어 배고프면 먹을 줄이나 알고 목마르면 마실 줄이나 알뿐이면 우리 민족이 설사 비사히 증식되어 2억만이 될지라도 다만 2억만의 금수종자를 증가하는 것이니 타민족의 식료품이나 더욱 바칠 뿐인 것이다.⁷⁴⁾

73) 「명림답부전」 『白巖朴殷植全集』권4, p. 273.

74) 같은 책, p. 267.

한반도에서 가장 팽창했던 “고구려 역사를 숭배하”는 이 민족주의적 정신과 함께 “인”, “법신”, “곡신”, “영혼”이라는, 아마도 당시 박은식이 알고 있던 동서양을 망라한 모든 최고의 가치들이 “인류자격”을 위해 지향된다. 민족이 원하는 것은 고작 물리적 팽창이 아니라 이 숭고한 가치들을 회복하여 “인류자격”에 참여하는 것이다.

박은식은 유학 역시 버리지 않고 유학이 품고 있는 보편을 보고 있다. 이 유학은 ‘유교구신’을 주창하며 “서양문명”을 대신할 “동양문명”으로서의 유학과는 다른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라면 그것이 유, 불, 도, 기독교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더라도 같은 실상일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민족이 자존하는 참된 길이라고 제시한다.

이 방향으로의 자존 찾기가 박은식의 이후의 행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이 한국근대 전반의 성격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도 앞으로 주목해 봐야할 과제로 남겨둔다.

투 고 일: 2015. 10. 16
 심사완료일: 2015. 11. 04
 게재확정일: 2015. 11. 05

이혜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참고문헌

- 『대한장강회월보』, 『서북학회월보』, 『서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연속간행물 <http://www.koreanhistory.or.kr>)
-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巖朴殷植全集』 III, IV, 동방미디어, 2002.
- 『時務報』, 『新民叢報』.
- 『飲氷室專集』, 北京:中華書局, 1989.
- 김순석, 「박은식의 대동교 설립운동」 『국학연구』제4집, 2004.
- 김현우, 「『학규신론』에 나타난 박은식의 경학관 연구—『논어』 인용 지문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43집, 2014.
- 노관범, 「1875~1904년 朴殷植의 朱子學 이해와 教育自強論」, 『韓國史論』43, 2000.
- 박정심, 「白巖 朴殷植의 哲學思想에 관한 研究—社會進化論의 受容과 陽明學的 對應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 慎鏞廈,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 우립걸, 『한국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 이혜경, 『천하관과 근대화론—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2002. ; 「청인(淸人)이 만나 두 ‘보편’ 문명—중화와 시빌라이제이션」, 『철학사상』32호, 2009.5 ;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의 관점에서 본양계초(梁啓超)의 ‘공덕’(公德)」, 『철학사상』46호, 2012.11. ;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사상』55호, 2015.
- 조종환, 「박은식의 애국계몽적 국권회복사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 福沢諭吉 著, 『文明論之概略』, 岩波書店, 1995.

ABSTRACT

Courses of Change in Park Eun-Sik's Thoughts:
A Search for Survival and self-Dignity

YI, Hye-Gyung

This study begins from a consideration of how modern Korean thinkers dealt with issues regarding not only the survival but also the self-dignity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closely follows the courses of change in the philosophy of Park Eun-sik (朴殷植, 1859-1925) in his search for breakthroughs toward the survival and self-dignity of Korea. Park's trajectory as laid out in this study includes the importation of modern European 'Civilization' in the early Enlightenment movement, his critique of Civilization based on Yangmingism, his critique of Confucianism and Sinocentrism, his advocacy of nationalism, and his search for a universal spirit. On the Korean peninsula, a land on which the two huge civilizations of Sinocentrism and modern European Civilization clashed, Park Eun-sik could settle for neither Confucianism nor nationalism. Critical of the immorality of Civilization accompanied by competitive survival, and also of the impracticalities and Sinocentric views of Confucianism, Park advocates nationalism. However, it cannot serve as his sole ideology. A brighter future for his people cannot be envisioned without a thorough critique of Sinocentrism and Civilization, but that critique is not possible from the position of nationalism. Park Eun-sik, keeping his distance from both Civilization and Confucianism, speaks not only of nationalism but also

of universal values which extend beyond one's own nation. He suggests to his people a future course not solely for survival but for human dignity.

Keywords: Park Eun-sik, survival, self-dignity, Civilization, Sinocentrism, universalism